

■ 주요 뉴스: 미국 3/4분기 기업실적, 전반적으로 예상치 상회, 일부 IT 대표 기업은 부진

- 미국 8월 주요 주택가격지수, 하락세 가속.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로 연결
- 영국 수백 총리, 심각한 위기에 직면. 경제 안정과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
- 중국 인민은행, 국내 기업의 보다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양호한 기업실적 및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1.6%], 달러화 약세[-1.0%], 금리 하락[-14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 및 국채금리 하락 등에 기인
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5주래 최고 수준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
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.9%, 0.7% 상승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둔화에 따른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반영
독일은 ECB의 금리인상폭 축소 전망 지속 등으로 16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427.0원, -6.1원) 0.4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0/25일	10/24일	전일대비			10/25일	10/24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59.1	3,797.3	1.63%	국채 금리 10y	미국	4.10%	4.24%	-14bp
	유럽	407.61	401.84	1.44%		독일	2.17%	2.33%	-16bp
	중국	2,976.3	2,977.6	-0.04%		영국	3.64%	3.75%	-11bp
	일본	27,250	26,975	1.02%		CDS 5y	한국	64bp	64bp
	한국	2,235.1	2,236.2	-0.05%	중국		129bp	134bp	-5bp
	달러지수	110.89	111.99	-0.99%	위험 지표	EMBI+	-	465	-
유로화	0.9966	0.9874	0.93%	VIX		28.46	29.85	-4.66%	
환율	엔화	147.93	148.91	0.66%		WTI유	85.32	84.58	0.87%
	위안화	7.2687	7.2630	-0.08%	원자재	구리	339.7	343.1	-0.98%
	원화	1,433.1	1,439.7	0.46%		금	1,653.2	1,649.8	0.2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3/4분기 기업실적, 전반적으로 예상치 상회. 일부 IT 대표 기업은 부진

- 10/25일 실적을 발표한 대표 기업들은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내놓았으며, 다우지수(31,836.7 +1.07%)는 이를 반영하여 6주 만에 최고치 마감. Coca-Cola는 주당순이익과 매출이 각각 0.69달러와 111억달러로 예상치(각각 0.64달러, 105억달러) 상회. 향후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
- GM 역시 3/4분기 2.2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여 예상치(1.88달러)를 20% 가량 상회했으며, 금년 세전 주당 순이익 전망치(6.5~7.5달러)를 유지. GM은 비용압박 등에도 실적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(JPMorgan의 Ryan Brinkman)
-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도 대부분의 기업실적이 당초 우려만큼 나쁘지 않은 것으로 확인.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시각도 점진적으로 개선(TD Ameritrade의 Shawn Cruz). 다만 장마감 후 공개된 빅테크의 경우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, 이는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
- Microsoft의 3/4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각각 2.35달러, 501.2억달러로 예상치(각각 2.30달러, 496.1억달러)를 상회. 다만 핵심 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클라우드 사업부문 매출의 경우 203.3억달러로 예상치(203.6억달러)를 소폭 하회
- Alphabet은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1.06달러, 690.9억달러로 예상치(각각 1.25달러, 705.8억달러) 하회. YouTube 광고수익은 70.7억달러로 예상치(74.2억달러)에 미치지 못했으나 Google 클라우드부문 수익은 69억달러로 예상치(66.9억달러) 상회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8월 주요 주택가격지수, 하락세 가속.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로 연결

- 8월 S&P/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전월비 둔화(15.6%→13.0%). 특히 상승률의 하락폭(-2.6%)은 1987년 집계 시작 이후 사상 최대. 8월 FHFA 주택가격지수의 전월비 하락률도 7월 대비 심화(-0.6%→-0.7%)
- 이번 결과는 모기지 금리의 급등 등에 기인. 한편 일부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이 주거비 하락 및 인플레이션 완화 등으로 이어지고, 이를 반영하여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증가

■ 영국 수석 총리, 심각한 위기에 직면. 경제 안정과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

- 경제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며, 의회 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. 다만 이는 결국 어려운 결정을 동반할 수 있다고 부연. 헌트 재무장관이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인 재정계획은 부채축소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

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, ECB의 금리인상 정책을 강력 비판

- ECB의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, 이는 은행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. 또한 향후 시행이 예상되는 대차대조표 축소 역시 역내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첨언

■ ECB 조사, 4/4분기 은행권의 대출 기준 강화 예상. 신용여건 악화 등이 배경

- 금리상승과 급격한 경기둔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감소하고 신용 접근이 어려워질 전망. 특히 금년 겨울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이 높아 은행은 대출에 더욱 신중할 가능성. 한편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담보 대출도 감소할 소지

■ 중국 인민은행, 국내 기업의 보다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

- 기존의 규정을 수정하여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좀 더 용이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. 이는 최근 위안화 약세로 인한 자본유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
- 한편 국가외환관리국은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권의 외환 포지션을 조사. 이는 만일의 경우 효과적 대응 마련이 목적

■ 일본 정부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고. 설비투자는 확대 예상

- 월간 경제보고에서 외환시장 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.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유지.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, 이는 금년 2월 이후 처음
- 스이치 재무장관은 정부의 엔화 매입은 외환시장 안정을,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물가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양측 간 충돌은 없다고 설명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2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: 102.5, 9월(107.8), 예상치(-)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유로존 경제, 주요 지표 악화로 침체 가능성 증증 - 블룸버그

(Euro-Zone Downturn Deepens, Making Recession More Likely)

- 유로존 10월 S&P 글로벌 종합 PMI(47.1)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'13년 4월 이후 최저 수준(팬데믹으로 인한 봉쇄기간 제외)으로 하락. 제조업 및 에너지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, 신규주문 감소 지속 및 고용여건 악화 등이 동반
- 특히 제조업체의 중간재 구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판매 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재고 축소 추세 등이 반영
- 급격한 생산 및 수요 감소세를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가 4/4분기에 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, 에너지 가격 상승과 유로화 약세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ECB가 통화긴축 스탠스를 강화하면서 경기 하강 위험이 더욱 확대될 소지

■ 유럽,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 - Financial Times

(Natural gas: next winter will bring harsher test for Europe)

- 금년 겨울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여건은 러시아 가스의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LNG 수입 증가와 수요 감소 등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
- 그러나 중기적 관점에서는 유럽 내 수입 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요인과 난방수요 급증, 중국의 수요 회복,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급 중단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들로 불확실성이 상당. 이에 에너지 안보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확대를 통한 병목 개선과 함께 에너지 절감 노력이 선행될 필요

■ 영국 신임 총리, 정치·경제적 복합 위기에 직면 - CNBC

(UK's Rishi Sunak inherits in-tray of anarchy as he takes over as PM of country in crisis)

- 영국의 수석 총리는 정치적 혼란 뿐 아니라 여러 복합적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.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증가, 산업 불안과 침체된 경제 등을 극복할 필요
- 이전 내각에서 재무장관직을 수행했던 수석 총리 자신도 현재 영국이 심각한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정
- 특히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 재정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마련 정책이 입안되는 지 등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고,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영국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은 어려워질 소지

■ 중국 경제성장을 부진, 주요 원인은 수출 - Financial Times

(China's growth stutters as exports fail to rescue economy)

- 중국의 3/4분기 성장률은 3.9%로, 예상치(3.4%) 상회했으나 3/4분기까지 연간 성장률은 3.0%로 목표치(5.5%)를 하회. 정책지원으로 2/4분기보다 성장이 반등하기는 했지만, 수출경기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(UBP의 Carlos Casanova)
- 중국의 수출은 GDP의 13%에 불과하지만,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. '21년 중국의 성장률은 8.1%였으며, 그 중 수출이 29.8% 늘어나 성장 기여도가 큰 편
- 다수의 전문가들은 금년 투자와 수출이 성장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. 국무원은 제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기업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제시. 하지만 해외의 경기침체로 수출경기 회복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

■ 유럽의 에너지 위기 해결,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 - Financial Times

(American businesses must stand with their European counterparts)

■ 일본 엔화 약세, 여타국에 비해 아직 위험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편 - WSJ

(For Japan's Yen, 150 Is No Magic Number)

■ 중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, 협력적 대외관계는 축소될 전망 - Financial Times

(China's limitless presidency means limited diplomacy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